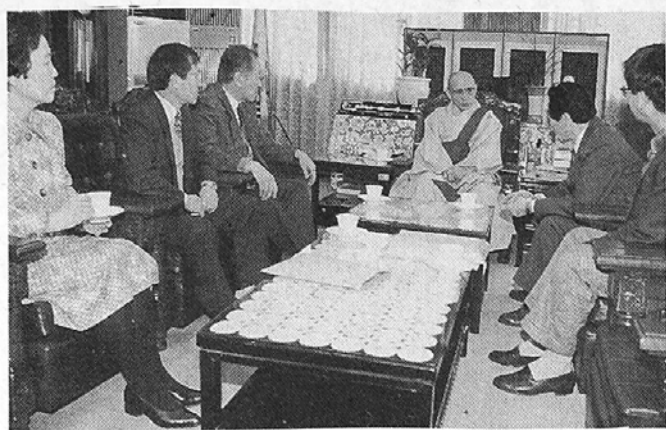


특집 - 겨울의 열,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특별좌담회



◇ 지난 21일 열린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본부' 관계자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사진 좌로부터 윤용숙회장, 박광서교수, 이기영위원장, 한상범교수, 김형균 사무국장. (사진=고영배 기자)

경주고속철 우회 12월 국회청원

월주스님등 관계자 21일 간담회

12월중으로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를 반대하는 국회청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사진 좌로부터 윤용숙회장, 박광서교수, 이기영위원장, 한상범교수, 김형균 사무국장.

고속철도의 경주도심 통과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이기영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장 등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조계종총무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속철도의 경주 우회통과에 원칙적인 의견을 모으고 서명운동을 통한 국회청원, 동남아불교국가 유네스코등과 해외공조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본부'의 고문으로 있는 월주스님, 추진위원장 이기영박사, 부위원장 한상범 한국고승불자연합회장, 상임추진위원 박광서 생명공양실천본부운영위원장, 사무국장 김형균 불지사대표, 윤용숙 여성문제연구소장 등 참석자들은 서명인원이 10만명이 되면 국회청원등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으며 공청회 개최 등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날 월주스님은 "평상시로는 대구~부산 직행노선이 타당하나, 경주 포함 울산 지역의 주민 정서를 감안해 경주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노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전국사찰에 공문을 시달, 중단차원

의 협력하여 불교적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향후대책을 합의했다. 이기영 추진위원장은 "불교계등 문화·학술단체가 하나로 결집, 서명운동으로 의견을 모아 건교부·문체부가 제시한 노선을 백지화하고 경주도심에서 15km 이상 우회하는 제3의 노선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 경 프랑스에서 열리는 '고속철도와 지역환경' 세미나에도 참석, 우리의 문화적 위기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균 사무국장은 "경주가 세계 10대 문화유적도시로 지정된 시점에서 고속철도 문제가 터져 나오자 문체부가 서둘러 제시한 안이 건교부가 5년전에 수립, 폐기했던 기본노선"이라고 말하고 "건교부의 계획노선 변경시의 추가경비와 공기연장도 70%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계변경에는 6개월의 기간과 1~2천억원의 경비가 추가로 소요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상범 부위원장은 "경주 고도보존 관련 입법을 위해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보존운동처럼 유네스코등 국제적인 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현재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에 가입한 단체는 191개이며, 서명 참석인원은 4만5천여명에 이른다. (김재경 기자)

"천년古都, 지켜야 할 민족의 고향"

BBS 특별 좌담회 지상중계

불교방송은 지난 18일 '우명을 밝히고' 프로그램에서 김상영교수(중앙승가대)의 사회로 이기영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장과 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문화재위원회)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철도의 경주도심통과와 관련한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불교학계와 고고학계의 원로인 두 학자의 좌담을 중계한다. (편집자 주)



◇ 이기영박사



◇ 한병삼씨



◇ 사회 김상영교수

남산엔 미래 등불이...

▲사회=경주문제에 민족문화의 사활이 달려있군요. 정부와 국민들에게 부탁할 말씀은.

▲이기영=경주 남산 곳곳에는 수행자들의 정성이 담긴 부처님들이 신령스런 기운속에 서 계십니다. 여기에 미래사회

정부노선 여론수렴안한 졸속정책 풍치·문화재 살릴 제3안 채택 마땅

▲사회=정부에서는 노선문제를 상의하러 온 적이 있습니까?

▲한병삼=건교부의 계획노선과 관련, 고속철도건설본부장에게 사적발굴단을 구성하라고 제안했으나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그 뒤 문화재위원회와 각계의 반대가 잇따랐습니다. 다만 경주시민의 희망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우회통과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경주경실련등의 '제3의 안'이 아니겠습니까. 건천지역에 잠시 섰다가 터널로 경주외곽을 통과하면 경주지역의 풍치와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남산근처에 기차역과 도로망이 들어서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일본의 경우 '역사고도 자연풍치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내놓게도 국회 문공위가 아닌 건설문화위원회가 만들어 국회입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이때도 주민들에게 대한 적절한 배상을 충분히 고려했지요.

▲사회=문제는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노선변경시의 경비부담과 공기연장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민족정신 서린 성산

▲이기영=정치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선결정시 각계의 의견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먼저 결정하고서, 큰일났으나 하는 수 없지 않느냐고 하니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프랑스 지식인들은 얼마후에 '고속철도가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합니다. 누가 가든 우리의 문화적 위기를 알려야겠습니다.

▲한병삼=말마당 문화재관리국회의에서 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이 설명하

의 등불이 될 정신이 있습니다. 동·서양에 자랑할 원호대사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잘 모르니까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하는 일이 안돼는 일도만 가고 있어요.

▲사회=불교학계와 고고역사학계의 의견이 고속철도의 경주 우회통과임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말씀은.

▲이기영=경주는 조상의 일이 서린 곳입니다. 고대문화를 아끼는 것이 조상을 받드는 일임을 알아야합니다.

▲한병삼=불교순례자의 고향으로서 2백20여개의 사자가 있는 곳이 경주입니다. 항공사진으로 보면 황룡사지 주위의 눈에 길바닥이 보입니다. 남산의 마애불들은 항상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경주인의 불교관과 미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을 훼손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줄 몰라

▲한병삼=우리나라 정부는 추후고 노래하고 그림그리는 것만 중요시합니다. 말초적인 예술만 중요한 줄 알다보니 광주비엔날레가 경주문화제보다 더 소중한 줄 압니다. 경주박물관장을 10년간 역임하는 동안 경주의 변화를 제논으로 지켜봤습니다. 내가 경주를 떠나고 나서 선도산에 학교가 들어서고, 명일산 등쪽 뒷편의 대형 쓰레기장, 분황사위의 18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더니 이제는 고속철도까지 들어선다니 기가 막입니다. 차라리 경주를 공업도시로 만들고 석굴암 본존불을 박물관에 모셔놓고 그곳에 가라오케나 설치하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화재가 있으니까 경주가 있다는 사실을 거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 추진위원회의 결성 의미는 무엇인지요.

▲이기영=경주는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백두산 다음가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경주는 개인의 마음의 고향과 아울러 민족정서의 고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지이 국민에게 널리 퍼졌다면 이런 날벼락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프랑스와 일본 등은 우리처럼 문화인과 문화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불교를 마구나 취급하고 문화재를 무시하고 경마장을 지어 돈을 벌겠다는 등 경주를 관광상품으로만 아는 이상 문화에 대한 무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경주의 모든 산들은 삼국통일을 이룬 건전한 민족정신이 서린 성산임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고속철도 노선을 확정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하지도 듣지 않은 정부에 대해 국민의 서명을 가지고 집약된 의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불교 성지 순례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동참금: 195만원
- 일정: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승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동참금: 210만원
- 일정: 서울-상해-성도-라사-장제-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횡산·구화산 6일

-지장보살도량 구화산 순례-

- 동참금: 95만원
- 일정: 서울-상해-황산-구화산-상해-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동참금: 188만원
- 일정: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명사 석굴)-돈황(천불동)-루르판-우름치-북경-서울

인도·네팔 성지 순례 10일

-불교 7대 성지와 네팔의 불교사원 순례-

- 동참금: 160만원
- 일정: 서울-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녹야원)-부다가야-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사위성-룸비니-카트만두(보댓-스와이엠부트 등)-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동참금: 100만원
- 일정: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동참금: 95만원

대만 5일

-불광사·회련·타이페이-

- 동참금: 65만원

HVECHO ADVENTURE TOURS, LTD. **이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 여행조건
- 호텔: 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 전일정 식사제공
- 최소 출발인원: 10인
- 전문 가이드 동행
- 여행자 보험